

동물 부장양상을 통해 본 북흥노의 매장습속*

— 몽골지역을 중심으로 —

장 윤 정**

〈목 차〉

- I. 머리말
- II. 흥노무덤 출토 동물 부장양상
- III. 동물 부장의 지역별 특징
- IV. 동물 부장양상을 통해 본 북흥노의 매장습속
- V. 맺음말

국문요약

몽골지역을 대상으로 동물 부장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이제까지 막연하게 유목민의 매장습속으로 규정되어 오던 동물 부장양상이 유목민의 한 족속인 흥노 내에서 동일한 형태로 행해지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동물 부장이라는 커다란 카테고리 안에서도 지역별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동물 뼈 출토상태를 근거하면 지역적으로 아르항가이 아이막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동쪽과 서쪽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서쪽은 개 뼈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羊이 중심을 이루며 羊과 말(馬)은 1개체 분을 전부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음식물의 성격이 강한 容器 안에 羊을 매납하고 있다. 그에 반해 동쪽은 개 한 마리가 부장되고 있다. 각 지역별, 혹은 유적별 다양성을 나타내지만 羊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동일하며 소(牛) 혹은 말(馬)을 조합하고 있다. 容器 안에도 羊을 포함한 말(馬), 소가 확인되고 있다.

동물의 부장위치를 보면 묘광내부→매장주체부, 부장공간→容器 안→묘광벽 안, 지표면 적석 혹은 표토 順으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대체적으로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2A-A00031).

**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묘광내부, 매장주체부, 부장공간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묘광 벽을 다시 파서 안에 공간을 만들어, 혹은 容器 안에 동물을 부장하는 것은 몽골 지역 흉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동반유물 중 중국계 청동거울에 주목하여 시기를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각 시기별에 따른 중국과의 관계는 1단계부터 핵심을 이루고 있던 아르항가이와 불간 아이막지역이 3단계까지 그 세력을 유지하며 투브 아이막지역은 2단계부터 등장하여 합세하고 있다.

주제어 : 동물뼈, 부장양상, 몽골, 흉노, 매장습속

I. 머리말

흉노는 서양에서 훈(Hun)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유목민으로서 기원전 209년 유라시아 초원지대를 최초로 통일하여 제국을 건설하였다. 기원전 2세기 초 흉노의 영토는 남쪽으로 만리장성, 북쪽으로 바이칼호, 동쪽으로 한반도 북부, 서쪽으로는 서역지역에까지 이르렀다. 기원후 1세기 중엽 경에 다시 남북으로 갈라져 남흉노는 漢에 복속되었고 지금의 몽골지역에서 활동하던 북흉노는 약 50년간 독립 국가를 유지하다가 기원후 1세기말에 멸망하게 된다.¹⁾ 흉노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는 몽골공화국의 경내와 자바이칼 남부지역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고고자료 역시 기원전 1세기 중반에서 기원후 1세기에 집중하고 있다.²⁾

여기서는 북흉노가 활약했던 지역으로 알려진 몽골지역을 중심으로 흉노무덤에서의 동물 부장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이제까지 막연하게 유목민의 매장습속으로 규정되어 오던 동물 부장양상이 유목민의 한 족속인 흉노 내에서도 동일하게 행해졌는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유목민 이면서 흉노, 그 중에서도 북흉노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매장습속을 규정함으로써 유목사회를 복원하는데 하나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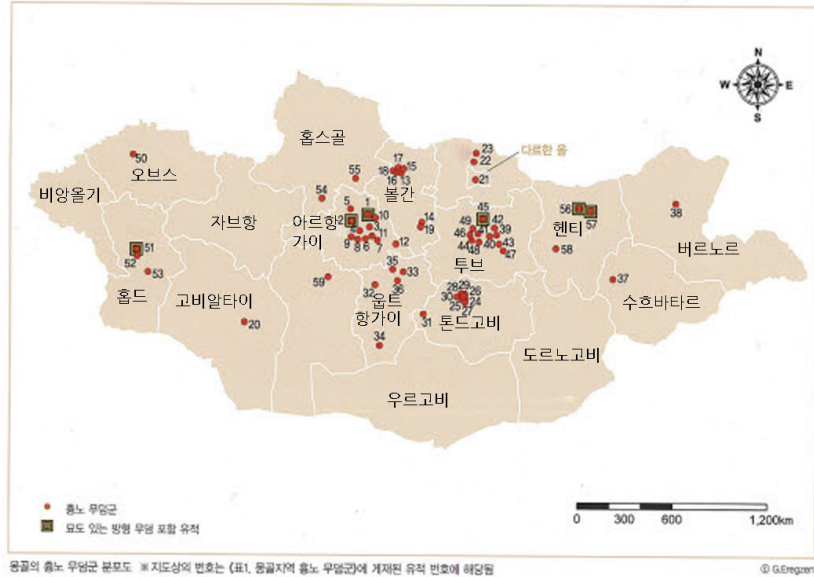
II. 흉노무덤 출토 동물 부장양상

몽골에서는 70여 개의 흉노 무덤 군에서 약 4천기의 무덤이 확인되었으며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곳은 약 400여기에 이른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몽골지역 흉노무덤에서의 동물 부장을 지역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유적 설명은 현재 몽골공화국의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그리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소개하기로 한다.³⁾(도 1)

1) 에렉젠(Gelegdorj EREGZEN), 「몽골 흉노 무덤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2) 강인옥, 「흉노와 동아시아 -흉노학의 정립을 위한 토대구축을 겸하여-」, 『동아시아 고대문화 속의 흉노(부경대학교·중앙아시아학회 2010년 국제학술대회)』, 사단법인 중앙아시아학회·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0, 9~27쪽.

3) 국립중앙박물관編, 『몽골 흉노 무덤 자료집성』, 2008에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도 1. 몽골지역 내 흉노 무덤 분포도

1. 오브스 아이막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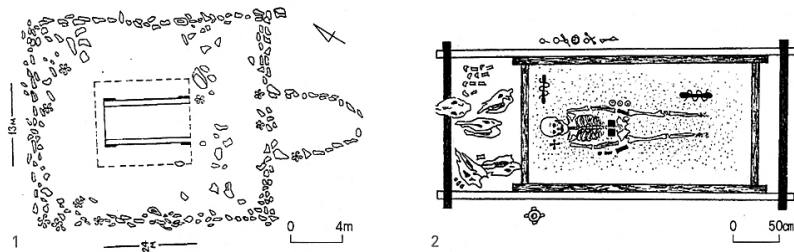
이 지역은 몽골의 가장 서쪽에 해당되며 여기에는 찬드만 울유적이 입지하고 있다. 오브스 아이막의 중심도시인 올란 고펜에서 서남쪽으로 약 2km 떨어져 있는 붉은 색 바위산을 찬드만 올이라고 한다. 이 산기슭에는 선사에서 고대에 이르는 무덤이 다수 분포하였는데 흉노무덤은 1973년에 3기, 1974년에 4기가 발굴되었다. 찬드만 올 유적의 7기 무덤 중 동물 뼈가 확인된 것은 2기이다. 예를 들면 50호 무덤은 도굴되지 않은 목곽묘로 피장자의 머리 북쪽에서 양과 염소의 뼈, 철제 칼, 골제 활 부속구, 골각기, 목제품 흔적, 직물 흔적 등이 출토되었다.

2. 흡드 아이막지역

이 지역은 몽골의 서쪽에 해당되며 오브스 아이막지역의 남쪽에 위치한다. 타힐팅 핫거르유적, 타르박타인 암유적, 할짚 호쇼유적 등이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한국어로 자료가 소개된 타힐팅 핫거르유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타힐팅 핫거르유적은 몽골 알타이 산맥 동쪽에 있는 차히르 하이르한산과 더드 타힐트산 사이 동서쪽에 형성된 계곡에 입지하고 있다. 1960년에 2기, 1988

년에 1기, 1990년에 2기⁴⁾ 등과 함께 2007년에 알려진 64호와 배장묘 2기, 제사유구⁵⁾ 등을 중심으로 한다. 공개된 자료 총 9기 중 동물 뼈가 출토된 것은 4기이며 이 가운데 64-1호 배장묘를 제외한 3기 모두 묘도를 가진 방형무덤(목곽묘)으로 목관과 목곽사이 부장공간에서 동물 뼈가 확인되었다. 또한 64호 무덤의 경우, 목곽 북쪽에 묘광을 안으로 파서 만든 공간이 있는데 말머리 1점, 뿔 달린 양머리 3점, 그리고 이들 동물의 골반과 다리뼈, 목뼈 등이 놓여 있었으며 모든 동물의 입이 북쪽을 향해 있다.⁶⁾ 한편, 1호와 2호에서는 바퀴, 일산대, 일산살꼭지 등 마차 부속구와 함께 銜, 재갈멈추개도 알려져 있다.(도 2)



도 2. 흡드 아이막지역(타힐팅 훗거르 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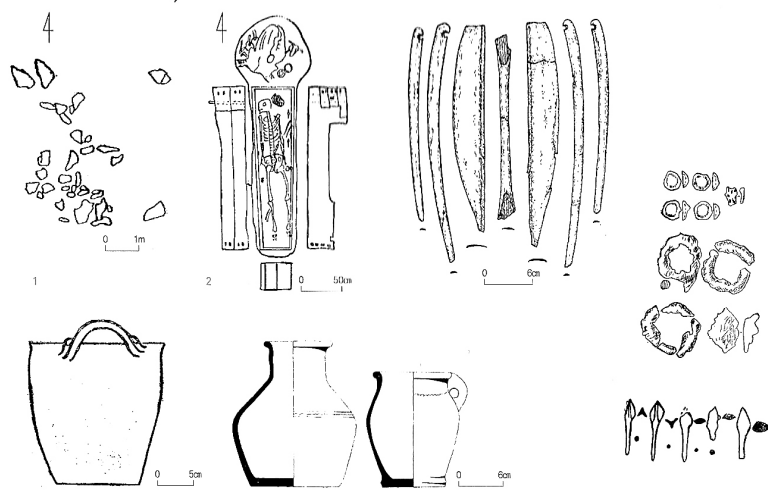
3. 고비 알타이 아이막지역

이 지역은 흡드 아이막지역과 서쪽 경계를 이루며 히르기스트 홀로이유적 등이 알려져 있다. 히르기스 홀로이는 알타이산맥 남쪽 낮은 산악사이에 형성된 비교적 넓은 계곡지대로 유적은 계곡 서쪽 언덕의 남쪽 평탄면에 위치하고 있다. 1986년 발굴 조사된 5기의 유구 중 동물 뼈는 3기에서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5호에서는 피장자의 머리 쪽인 묘광 북단벽을 안으로 파서 공간을 만들고 소머리 뼈와 3개의 양과 염소의 머리뼈를 다른 뼈들과 함께 부장하였다. 또한 씨앗이 들어 있는 호형토기, 양 다리뼈와 곡물, 야채를 넣어 가죽으로 덮은 동복도 함께 출토되었다.(도 3)

4) 국립중앙박물관編, 앞의 책, 2008.

5) J.바야르사이한, Ts.에기마, 『타힐팅 훗거르 유적 64호 무덤 발굴조사 성과』, 『초원의 대제국 흉노(한-몽 공동학술조사 1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 국립중앙박물관, 2008, 178~201 쪽.

6) 2호에서도 말머리가 북쪽으로 향해 놓여 있었다.



도 3. 고비 알타이 아이막지역(히르기스트 홀로이 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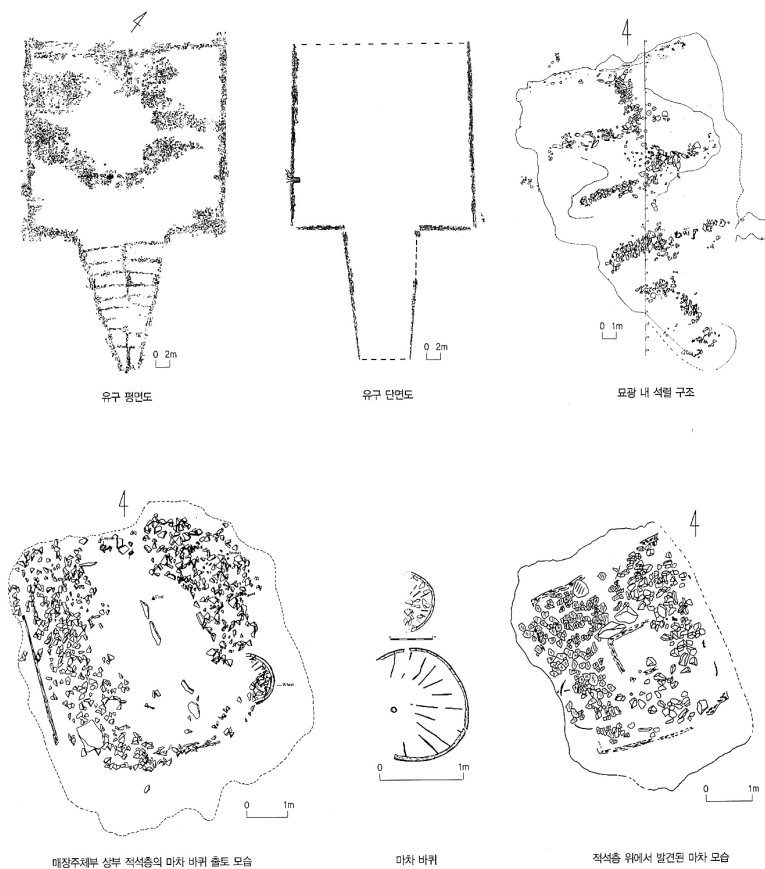
4. 흡스골 아이막지역

이 지역은 몽골의 중앙에서 약간 북서쪽에 해당되며 서쪽으로는 자브항 아이막지역, 동쪽으로는 불간 아이막지역, 남쪽으로는 아르항가이 아이막지역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누호팅 암유적, 솔르 툴고이유적 등이 알려져 있다. 먼저 누호팅 암유적은 갈트숨 중심마을 서북쪽에 있는 이테르강 北岸에 형성되어 있으며 1975년에 무덤 3기가 조사되었다. 그 가운데 동물 뼈는 2기에서 검출되었다. 이에 반해 솔르 툴고이유적은 셀렝게강 북안에 있는 언덕 뒤 평탄지에 입지하고 있다. 1985년 1기의 무덤이 발굴 조사되었는데 1호 묘광 동북모서리에서 토기, 양·염소 머리뼈와 다리뼈, 철제 재갈, 녹각제 재갈 멈추개, 동물문양의 청동굴레 장식, 청동환, 동북 편 등이 출토되었다.

5. 아르항가이 아이막지역

이 지역은 몽골 중앙부에 해당되며 골 모드유적, 골 모드II유적, 고르완 모드트 올유적, 나이마 툴고이유적, 타미링 올란 호쇼유적, 호드긴 툴고이유적, 에쓰기링 호지르유적 등이 분포하고 있다. 먼저 골 모드유적은 항가이산맥의 북쪽 끝인 부흔 싸르산 북쪽 기슭의 숲속에 위치하고 있다. 1956년-1957년 배장묘

(DS) 26기와 방형무덤 1기(1호), 2000년-2005년 방형무덤 4기(20호, 79호, 74호, 75호)와 원형배장묘(MF) 11기 등이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방형무덤 5기 중 4기에서, 그리고 DS 26기 중 2기, MF 11기 중 6기에서 동물 뼈가 각각 출토되었다.(도 4) 또한 골 모드Ⅱ유적은 한오이강이 흐르는 평원에 연결한 보가트산 북쪽 기슭 골모드계곡에 조성되어 있다. 2002년에 발굴 조사되어 자료가 공개된 배장묘 8기 중 동물 뼈는 2기에서 출토되었다. 또한 최근에 발표된 몽골 울란바타르 국립대학교의 발굴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7)



도 4. 아르항가이 아이막지역(골모드 20호)

7) D.에르테네바타르, 『발가스 탈(골모드Ⅱ) 흉노 귀족무덤 조사』, 『흉노와 그 동쪽의 이웃들(국립중앙박물관·부경대학교 2012 국제학술대회)』, 2012, 143~171쪽. 대형무덤 1기와 소형무덤 27기가 조사되었으며 1호의 경우, 지하 16m 깊이에서 말 21마리, 양 3마리, 염소 3마리의 뼈가 깔린 상태로 확인되었다. 그 외 동물이 부장된 유구는 3호, 7호, 13호, 15호, 19호, 23호, 24호, 28호 등이 알려져 있다.

동물 부장양상을 통해 본 북흉노의 매장습속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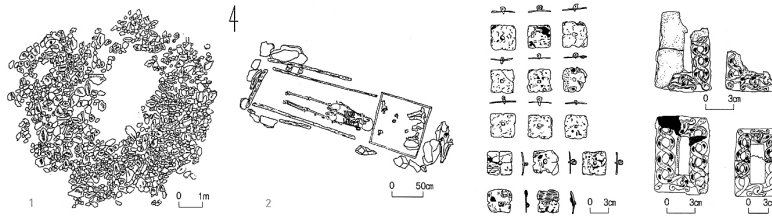
다음의 고르완 모도트 올유적은 북타미르강 유역 타르히트산 동쪽 씨베르팅 암계곡에 흐르는 하천 서쪽 바위언덕 남쪽기슭에 입지하고 있다. 1978년에 4기, 1983년에 1기의 무덤이 발굴 조사되었다. 참고한 자료 총 3기 중 2기에서 동물 뼈가 검출되었다.

한편, 나이마 톨고이유적은 후니강 東岸에 위치하고 있다. 1963년 2기, 1964년 2기, 1974년 5기, 1987년 11기 등 모두 20여기 정도가 조사되었으며 동물 뼈는 11기에서 출토되었다. 또한 타미링 올란 호쇼유적은 타미르강 沿岸의 편평한 곳 서쪽 가장자리에 분포하고 있다. 2001년에 조사된 무덤 2기 모두에서 동물 뼈가 발견되었으나 종류는 알 수 없다. 그리고 호드긴 톨고이유적의 경우, 북쪽과 동쪽은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남쪽은 완만한 경사의 넓은 평원으로 무덤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형성되어 있다. 1987년 2기, 2001년 4기 등 조사된 무덤 총 6기 모두에서 동물 뼈가 발견되었다. 마지막으로 에즈기팅 호지르유적은 호드긴 톨고이유적과는 서쪽으로 약 5km 떨어져 있으며 평원의 야트막한 구릉 동남사면에 무덤 군이 조성되어 있다. 1981년에 발굴된 4기 가운데 2기에서 동물 뼈가 노출되었다.

6. 볼간 아이막지역

이 지역 역시 몽골의 중앙에 해당되며 보르한 톨고이유적, 옹곤트유적, 하난 하트유적, 홀르터스트 녹가유적, 훈헤린 암유적 등이 알려져 있다. 먼저 보르한 톨고이유적은 예깡강 東岸의 높고 편평한 테라스에 입지하며 107기의 무덤이 발굴 조사되었다.⁸⁾ 그리고 옹곤트유적의 경우, 이흐 돌란산 남쪽 옹곤트와 우텐트란 바위 언덕사이 서쪽 경사면에 형성되어 있다. 이 유적에서 발굴 조사하여 보고된 2기 무덤 모두에서 동물 뼈가 확인되었다. 또한 하난 하트유적은 예깡강유역 히뎨 다와지역의 서쪽에 해당되며 발굴 조사된 1기의 무덤에서 동물 뼈가 발견되었다. 한편, 홀르터스트 녹가유적은 예깡강 동쪽 나지막한 언덕 평탄면에 위치하며 1999년에 조사된 1기의 무덤에서 동물 뼈가 검출되었다. 마지막으로 훈헤린 암 유적은 예깡강유역 벨색산 동쪽 훈헤린 계곡의 높은 평탄면 숲속에 조성되어 있으며 1기의 무덤이 발굴 조사되어 동물 뼈가 노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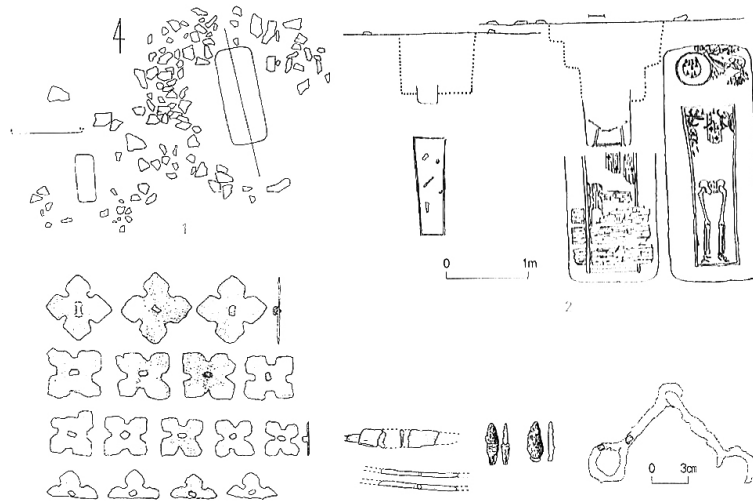
⁸⁾ 발굴 조사된 107기의 전체적인 양상은 파악하기 어려우나, 제시된 도면 104기와 본문 내용을 통해서 동물 부장을 판단할 수 있는 유례는 4호, 5호, 15호, 18호, 19호, 20호, 25호, 27호, 28호, 31호, 33호, 34호, 37a호, 46호, 50호, 52호, 57호, 59호, 60호, 67호, 72호, 81호, 84-4호, 85호 등 약 24기 정도이다(국립중앙박물관編, 앞의 책, 2008). 그 외 18a호, 83a호, 16호, 36호, 83호 등에서 동물 뼈가 출토되었다(에렉젠, 앞의 논문, 2009).



도 5. 볼간 아이막지역(보르한 툄고이 27호)

7. 읍르항가이 아이막지역

이 지역은 몽골의 중앙에서도 남쪽에 해당되며 언이톨르트유적,⁹⁾ 타르박타이유적, 텡씨 올유적, 후쎌 후틀유적 등이 분포하고 있다. 먼저 타르박타이유적은 쟁스테인강 유역에 있는 작은 계곡 끝 낮은 언덕 남쪽 평지에 입지하고 있으며 1989년 2기의 무덤이 발굴 조사되었다. 그 중 2호에서 동물 뼈와 함께 말 입에 철제 재갈이 부착된 채 출토되었다.(도 6) 다음의 텡씨 올유적은 박아 텡씨산 남쪽 평탄면인 또팅 준 보츠지에 위치하고 있다. 1971년 3기, 1972년 4기, 1977년 4기 등 모두 11기가 발굴 조사되었으며 동물 뼈는 6기에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후쎌 후틀유적은 읍르항가이 아이막 호지르트습 중심지에서 동북쪽으로



도 6. 읍르항가이 아이막지역(타르박타이 1호와 2호)

⁹⁾ 언이톨르트계곡 가장자리 산 남사면에 위치하며 1기의 무덤이 발굴 조사되었으나 동물 뼈는 알려져 있지 않다.

약 20km 떨어진 곳인 후썬 후틀 언덕 동쪽 기슭에 형성되어 있다. 총 2기가 발굴 조사되었으며 공개된 자료 1기의 무덤에서 동물 뼈가 발견되었다.

8. 다르한 올 아이막지역

이 지역은 몽골의 중앙 북쪽에 해당되며 다르한유적이 알려져 있다. 이 유적은 다르한시 부근 툽우르테이산 사면의 낮은 언덕 서남쪽에 입지하고 있으며 6기의 무덤이 발굴 조사되어 4기에서 동물 뼈가 출토되었다.

9. 투브 아이막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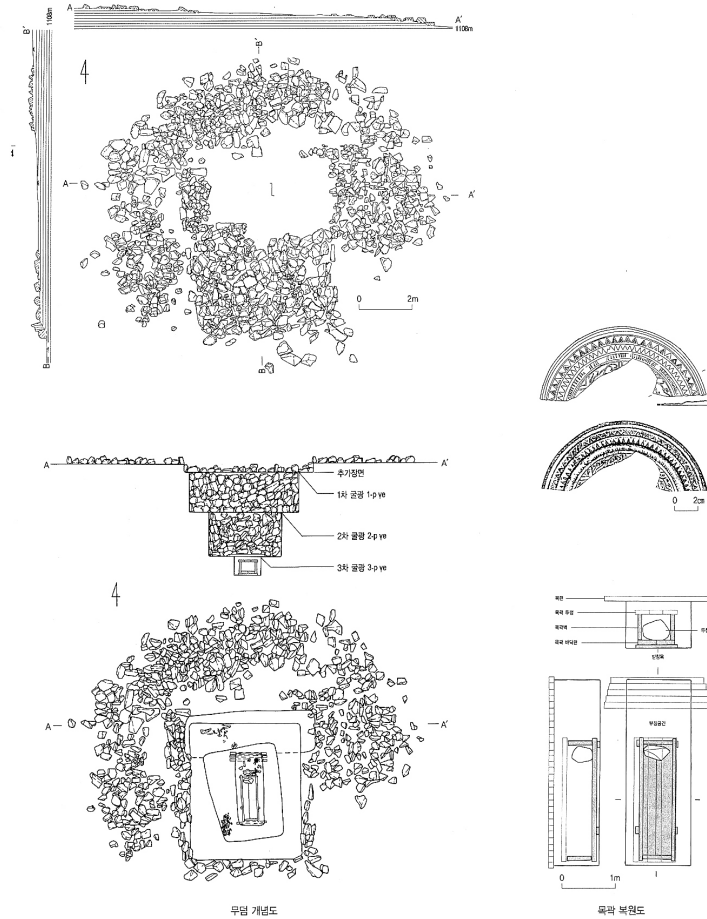
이 지역은 몽골의 중앙에 해당되며 북쪽으로 셸렝게 아이막지역, 서쪽으로 불간·아르항가이·웁르항가이 아이막지역, 남쪽으로 돈드고비·도르노고비 아이막지역, 동쪽으로 헨티 아이막지역과 각각 경계를 이루고 있다. 바론 하이르한유적, 벨르헝 암유적,¹⁰⁾ 자라 톨고이유적, 모린 톨고이유적, 노용 올유적 등이 존재하고 있다. 먼저 바론 하이르한유적은 울란바토르에서 서쪽으로 약 30km 떨어진 톨르강 유역에 위치한 선기너산 서쪽의 바론 하이르한산 남사면 기슭에 입지하고 있다. 2기의 무덤 자료가 알려져 있으며 2기 모두에서 동물 뼈가 노출되었다.

다음은 자라 톨고이유적으로 투브 아이막 바이숨 중심지에서 남쪽으로 12km 떨어진 바위 언덕 남쪽기슭에 위치하며 발굴 조사된 6기의 무덤 중 5기에서 동물 뼈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모린 톨고이유적은 울란바토르에서 서남쪽으로 약 130km거리로 모린 톨고이언덕 서쪽에 형성되어 있다. 보고된 무덤 7기 모두에서 동물 뼈가 검출되었다.(도 7) 마지막으로 노용 올유적은 버르노르 농업마을에서 동북쪽으로 약 30km 떨어진 노용산 서북쪽에 있는 수직트와 남쪽의 조람트, 동쪽의 호지르트라는 세 계곡에 230여기가 분포하고 있다. 이 유적은 1924년 7기와 기타,¹¹⁾ 1924-1925년 2기, 1927년 2기, 1954-1955년 18기, 1961년 2기, 2006년 이후에도 발굴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여기에서 대상이 된 무덤은 26기이며¹²⁾ 동물 뼈는 8기에서 확인되었다.

10) 총 3기의 무덤이 발굴 조사되었으나 동물 뼈의 존재여부는 알 수 없다(국립중앙박물관編, 앞의 책, 2008).

11) 안드레이브무덤 등 고리형 무덤 몇 기가 발굴 조사되었다고 기술하였다(국립중앙박물관編, 앞의 책, 2008).

12) 국립중앙박물관編, 앞의 책, 2008 ; N.V.폴로스막·D.체벤도르지·E.S.보그다노프, 『노인-올라(Noin-Ula) 제 20호분 고분』, 『초원의 대제국 흉노(한-몽 공동학술조사 10주년 기념 국제학술 심포지엄)』, 국립중앙박물관, 2007, 156~17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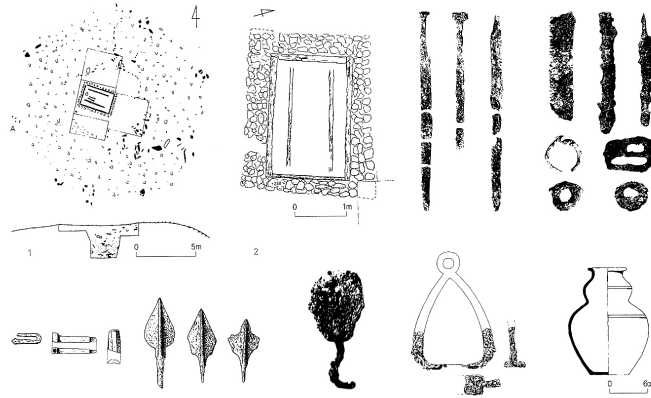
도 7. 튜브 아이막지역 (모린 틀고이 00-1호)

10. 돈드 고비 아이막지역

이 지역은 몽골의 중앙에서도 남쪽에 해당되며 바가 가즈링 출로유적, 알락 틀고이유적, 도르알르유적, 이호링 암유적, 호호 하드유적, 후렌 혼드유적, 자간 오하유적, 잠바가 하이르한유적 등이 알려져 있으나 발굴 조사된 유례가 매우 적다. 이 가운데 바가 가즈링 출로유적은 바가 가즈링 출로 바위산 북쪽에 위치한 돈드 썬드계곡 서남쪽 가장자리 서쪽 경사면에 조성되어 있으며 1기의 무덤이 발굴 조사되었다. 1호의 경우, 묘광에서는 다리뼈, 등뼈, 갈비뼈, 발가락뼈 등 말 뼈와 양 뼈 일부가 수습되었으며 목관의 동북모서리에서는 철제 재갈과 재갈땀 추개가 출토되었다.

11. 헤티 아이막지역

이 지역은 몽골의 동쪽에 해당되며 보르 블라긴 암유적,¹³⁾ 도르릭 나르스유적, 돌르가 올유적 등이 알려져 있다. 먼저 도르릭 나르스유적은 헤티 아이막 바양 아드라카숨 중심마을 앞 소나무 숲속에 형성되어 있다. 발굴 조사된 3기 중 2기에서 동물 뼈가 출토되었다. 그리고 돌르가 올유적은 헤티 아이막 자르갈트한숨 중심마을에서 동남쪽으로 약 27km 떨어진 돌르가 올산 평탄 대지 서남쪽에 조성되어 있다. 1971년 3기, 1975년 1기, 1988년 5기 등 총 9기 중 4기에서 동물 뼈가 확인되었다.(도 8)



도 8. 헤티 아이막지역(돌르가 올 71-7호)

12. 수흐바타르 아이막지역

이 지역은 몽골의 동남쪽에 해당되며 엔게르 보쯔유적이 위치하고 있다. 이 유적은 부렌척트 농업 마을에서 동남쪽으로 약 17km 떨어진 텔르르한산 동남쪽 가장자리의 엔쯔링 보쯔계곡 평탄지에 입지하고 있으며 1991년 1기의 무덤이 발굴 조사되어 동물 뼈가 검출되었다.

Ⅲ. 동물 부장의 지역별 특징

유목민의 하나인 흉노, 이들의 매장습속으로도 알려져 있는 동물 부장이 몽

¹³⁾ 아직까지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다.

골이라는 하나의 지역에서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목문화라는 커다란 범주 내에서 막연하게 단지 동물 부장이라는 커다란 특징을 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료의 축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이 때, 북흥노의 매장습속을 좀 더 구체화함으로써 다른 유목민의 매장습속과 비교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몽골 내 흉노무덤의 동물 부장양상에 대해 각 지역별 특징을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흥노의 매장습속을 살펴보고자 한다.

埋葬이라는 용어는 서구 사회에서 'burial'로 시신 처리 행위를 통칭하는 단어로 亡者를 산 자의 영역으로부터 제거하거나 죽은 것으로 구별하는 많은 방식을 가운데 한 가지이다.¹⁴⁾ 몽골에서는 가축의 머리와 다리 등을 무덤에 부장하는 것을 '허일거(khoilgo)'라 부른다. 이 풍습은 사람이 사망한 후 다른 세계에 가서 산다는 믿음에서 유래되었으며 무덤에 부장한 동물 중 말은 교통수단, 소는 우유, 양과 염소는 고기와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動物副葬은 제사용 순장과 출토 동물 뼈의 부위(예를 들면 등뼈, 골반뼈 등 한두 점)에 따라 사후세계에 갈 때 먹도록 준비한 음식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이 두 가지, 즉 제사용은 부장공간을 달리하거나 동물의 머리 혹은 다리 등 특정부위의 뼈를 순서대로 올려놓는 것 등으로 음식용과 구분지을 수 있다고 하였다.¹⁵⁾ 그러나 실제 발굴 조사를 통해 알려진 흉노무덤은 대부분 도굴되거나 무덤 전체를 발굴하지 않아 동물 뼈의 출토상태를 근거로 구분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지금의 흉노무덤 이전에 조성된 예깡강유역에 분포하는 청동기시대 판석묘¹⁶⁾ 중에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곳은 총 13곳의 27기 무덤이다. 이 가운데 동물 뼈가 확인된 곳은 12기의 무덤이며 소(牛)와 말(馬)이 주류를 이룬다. 특히 7기(25.9%)의 무덤에서 말뼈가 검출되었으며 머리뼈, 턱뼈, 등뼈, 말굽, 척추뼈 등의 부위가 알려져 있다.¹⁷⁾ 이러한 유례를 염두에 두고 여기서는 각 지역별 흉노무덤에서 출토된 동물의 종류를 살펴보고자 한다.(표 1)

14) 마이크 파커 피어슨 저, 이희준 역, 『죽음의 고고학』 영남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5, 사회평론, 2009.

15) 에렉젠, 앞의 논문, 2009.

16) 대부분 기원전 13-6세기로 추정되고 있다(Ch.아마르툽신, 『예깡강 유역 판석묘에 대한 연구(제1회 한-몽 학술심포지엄)』, 국립중앙박물관, 2003, 95~111쪽).

17) Ch.아마르툽신, 앞의 논문, 2003.

표 1. 몽골 내 각 지역별 출토 동물의 종류

아이막지역	양	염소	말	소	토끼	새	개	낙타	곰	미확인
오브스	●	●	●							
홉드	●		●	●				●		
고비알타이	●	●		●						
홉스골	●	●								
아르항가이	●		●	●	●					●
볼간	●	●	●	●			●			●
우르항가이	●	●	●	●		●	●			●
다르한울		●	●	●						●
투브	●	●	●	●		●	●	●		●
돈드고비	●		●							
헨티	●	●	●	●					●	●
수호바타르	●		●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양은 몽골 대부분의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양의 부위는 머리뼈, 목뼈, 다리뼈, 갈비뼈, 엉덩이뼈, 복숭아뼈 등 매우 다양하다. 양, 염소, 말, 소 등이 전부 확인되는 지역은 볼간 아이막지역, 우르항가이 아이막지역, 투브 아이막지역, 헨티 아이막지역 등 4곳이다. 그 외 지역에서는 양, 염소, 말, 소 등에서 3종류의 조합을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흥노무덤에서 개 뼈가 확인된 곳은 투브 아이막지역의 비룬 하이라한 90-6호, 모린 툄고이 00-1호, 볼간 아이막지역의 보르한 툄고이 제46호, 제50호, 제60호, 제69호, 부리아트 일밍암 제58호, 데르스트 제36호 등이 알려져 있다.¹⁸⁾ 이와 함께 우르항가이 아이막지역 텡씨 울 72-7호, 77-4호 등에서도 개 뼈가 출토되었다.

표 1의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각 지역별 주요 동물 뼈 출토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2)

표 2. 몽골 내 각 지역별 주요 부장 동물의 점유상태

아이막지역	유적명	전체	동물의 종류				
			양	염소	말	소	미확인
오브스	찬드만 울	2	2 (100%)	1 (50%)	1 (50%)		
홉드	타힐팅 훗거르	4	2(50%)		2 (50%)	2 (50%)	

¹⁸⁾ 윤형원, 『모린 툄고이 흥노 무덤의 성격(제1회 한-몽 학술심포지엄)』, 국립중앙박물관, 2003, 138~154쪽.

아이막지역	유적명	전체	동물의 종류				
			양	염소	말	소	미확인
고비 알타이	히르기스트 홀로이	3	3 (100%)	1(33%)		1 (33%)	
흙스골	누호팅 함	2	2 (100%)				
	솔르 톨고이	1	1 (100%)	1 (100%)			
아르항가이	골모드	12	2(16%)		6 (50%)	1(8%)	7 (58%)
	골모드II	2	1(50%)		2 (100%)		
	고르완 모도트 올	2			2 (100%)	1 (50%)	
	나이마 톨고이	11	6(54%)		1(9%)	7 (63%)	1(9%)
	타미링 올란 호쇼	2					2 (100%)
	호드긴 톨고이	6	5(83%)		1(16%)	3(50%)	3(50%)
	에쯔기팅 호지르	2	1(50%)				1(50%)
불간	보로한 톨고이	24	?	?	?	?	?
	웁곤트	2	2 (100%)	1(50%)	1(50%)	2 (100%)	
	하난 하트	1			1 (100%)		1 (100%)
	홀르터스트 녹가	1	1 (100%)	1 (100%)	1 (100%)	1 (100%)	
	훈헤린 암	1	1 (100%)	1 (100%)			1 (100%)
웁르항가이	타르박타이	1			1 (100%)	1 (100%)	
	텡씨 올	6	4(66%)	2(33%)	4(66%)	1(16%)	1(16%)
	후씬 후툼	1	1 (100%)		1 (100%)		1 (100%)
다르한 올	다르한	4		2(50%)	1(25%)	2(50%)	2(50%)
투브	바론 하이르한	2				1(50%)	
	자라 톨고이	5	3(60%)		3(60%)	1(20%)	2(40%)
	모린 톨고이	7	5(71%)	1(14%)	1(14%)	5(71%)	4(57%)
	노용 올	8	2(25%)	1(12%)	6(75%)	2(25%)	2(25%)

아이막지역	유적명	전체	동물의 종류				
			양	염소	말	소	미확인
돈드 고비	바가 가쯔링 출로	1	1 (100%)		1 (100%)		
헨티	도르릭 나르스	2	1(50%)	1(50%)	2 (100%)	1(50%)	1(50%)
	돌르가 올	4	4 (100%)		2(50%)	2(50%)	
수흐바타르	엔게르 보쯔	1	1 (100%)		1 (100%)		

표 2를 보면 대략 동물 뼈 출토상황에서 크게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염소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아르항가이 아이막지역을 중심으로 서쪽에는 말(馬)과 소(牛)의 조합이 적은 편이고 동쪽은 개(犬)의 부장이 확인되며 말과 소를 같이 공반하는 유형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르항가이 아이막지역의 서쪽에 해당되는 오브스 아이막 지역은 양+염소, 양+말의 조합을 각각 1예씩 나타내며 양의 출토빈도가 높다. 동물의 부위를 보면 도굴되지 않은 61호에서 양은 목과 다리, 말(馬)은 머리, 목, 다리, 날개, 갈비 등의 뼈가 검출되었다. 홉드 아이막지역의 경우, 전체 4기의 동물 출토 조합은 양 25%, 소 25%, 말 25%, 양+소+말 25% 등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약간이지만 양이 우세하다. 이 지역의 타힐팅 훗거르 2호나 64호는 잔존상태가 양호한 편으로 부장된 동물 부위를 보면 말(馬)은 머리와 다리, 양은 머리와 다리 외에도 목, 골반 등의 뼈가 알려져 있다. 그리고 고비알타이 아이막 지역의 3기 모두에서 양이 확인되어 점유율 100%를 차지하며 양+염소+소의 조합 1예가 있다. 양은 머리, 다리, 갈비 등 다양한 부위가 보이며 소와 염소는 머리뼈가 주류를 이룬다. 마지막으로 홉스골 아이막지역 2유적 모두에서 양이 확인되고 양+염소 조합 1기가 알려져 있다. 여기서도 양과 염소는 머리뼈와 다리 뼈 중심이다.

상기의 4개 지역에서는 양이 중심을 이루고 양+염소의 조합이 우세하다. 이 가운데 양과 말(馬)은 머리와 다리를 중심으로 목, 갈비, 골반 등 다양한 부위가 사용되고 있으며 고비알타이의 히르기스트 홀로이 5호와 홉스골의 누흐팅 암 21호에서는 동복과 토기 안에 양의 다리뼈를 부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아르항가이 아이막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7개 유적에서는 염소의 존재가 알려져 있지 않다.¹⁹⁾ 골모드유적에서는 말(馬)이 단연히 우세하고 양+말,

양+소가 각각 1예씩 확인된다. 동물 부위를 보면 말(馬)은 머리와 다리, 소(牛)는 머리, 羊은 머리, 목, 갈비, 다리 등이 확인되고 있다. DS-14호의 경우, 동북 안에서 말뺨이 노출되었다. 나이마 톨고이유적에서는 소(63%)→양(54%)→말(9%)의 順으로 출토빈도가 높으며 주로 하나의 유구에 같은 종류의 동물을 부장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14호 토기 안에서 양 뼈가 검출되었다. 부장된 동물의 형태는 소(牛)와 羊의 경우 목, 갈비, 날개, 다리 등 다양하며 말(馬)은 이빨과 다리뼈 등이 발견되었다. 또한 호드긴 톨고이유적은 6기에서 동물 뼈가 발견되었는데 양이 83%로 우위에 있으며 양+소 2예, 양+말 1예 등의 조합을 보인다. 羊은 1개체분에서 머리가 없거나 아래턱 등이며 소(牛)는 아래턱이 보인다. 전체적으로 각 유적에서는 하나의 유구에 한 종류의 동물을 주로 부장하는 경향이 있으며 골모드유적에서는 말(馬), 나이마 톨고이에서는 소, 호드긴 톨고이에서는 羊 등의 점유율이 높은 편이다. 羊과 소(牛)는 특정부위만 부장하기보다는 한 개체를 전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인상이다. 한편, 동북과 토기에서 말뺨과 양 뼈가 각각 출토되어 두 동물의 식용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표 3)

표 3. 아르항가이 아이막지역의 주요 동물 조합상태

유적	출토유구 수(기)	양+소	양+말	말+소
골모드	12	1(8%)	1(8%)	
골모드II	2		1(50%)	
고르완 모드트 울	2			
나이마 톨고이	11	1(9%)		1(9%)
타미링 올란 호쇼	2			
호드긴 톨고이	6	2(33%)	1(16%)	
에쯔기팅 호지르	2			

마지막으로 아르항가이 아이막지역을 중심으로 동쪽에 해당되는 그룹이다. 먼저 불간 아이막지역²⁰⁾의 읍근트에서는 양+소 1예, 양+염소+소+말 1예로 양+소의 조합을 기본으로 한다. 羊과 염소는 머리, 엉덩이, 다리가 주로 이용되고 소(牛)는 머리, 목, 다리 그리고 말(馬)은 머리에 집중되고 있다. 홀로터스트 녹가 12호는 양+염소+소+말의 조합이고 부위는 목과 다리가 출토된 羊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머리가 많다. 훈헤린 암 1호는 양+염소의 조합이 보이며 羊과 염소의

¹⁹⁾ 미확인 동물 뼈에서 염소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확인된 자료를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²⁰⁾ 출토된 동물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는 보로한 톨고이유적은 언급하지 않도록 한다.

머리, 등뼈 등의 부위가 확인된다. 전체적으로 양+염소 혹은 양+염소+소+말 등의 조합이 집중하고 있다. 羊과 염소는 머리와 다리 외의 엉덩이뼈, 등뼈 등이 검출되어 한 개체의 전체부위가 활용된 듯하며 소(牛)는 머리와 다리, 그리고 말(馬)은 머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동물을 容器 안에 부장하는 유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리고 읍르항가이 아이막지역의 타르박타이유적에서는 말+소의 조합 1예가 보인다. 말(馬)은 머리 갈비, 날개, 다리 등이며 소(牛)는 머리뼈가 확인된다. 텁씨 올유적의 경우, 양+염소 1, 양+말 2, 양+염소+소+말 1 등으로 양+말의 조합이 우위에 있다. 부장된 부위를 보면 羊과 염소, 소(牛)는 머리, 그리고 말(馬)은 머리, 다리가 알려져 있다. 또한 개(犬)는 머리, 날개, 엉덩이, 다리 등 전체적인 부위가 출토되고 있다. 후썬 후틀유적에서는 양+말 1예가 관찰된다. 부장된 부위의 경우, 羊은 다리뼈, 말(馬)은 등, 갈비, 날개, 다리, 꼬리, 발굽 등 다양하다. 전체적으로 각 유적에서는 말(馬)과 개(犬)가 우세를 보이며 양+말의 조합의 점유율이 높다. 말(馬)은 출토 부위가 다양하여 한 개체를 전부 활용하고 있는 추정할 수 있다.

한편 투브 아이막지역의 경우, 먼저 자라 톨고이유적에서는 양+말 1, 양+말+소 1 등으로 양+말의 조합이 중복되고 있다. 羊은 머리와 목, 말(馬)은 머리와 다리, 소(牛)는 갈비뼈가 대부분이다. 모린 톨고이유적에서는 양+소 3, 양+소+염소 1, 소+말 1 등의 유례가 파악되어 양+소 조합의 점유율이 높다. 羊과 소(牛)는 머리, 갈비, 다리 등이고 염소는 머리, 말(馬)은 엉덩이, 개(犬)은 1개체분이 보이고 있다. 노용 올유적에서는 양+염소+말 2, 소+말 1 등의 조합과 함께 말(馬) 단독으로도 발견되어 말(馬)이 가장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리고 노용 올 54-9호에서는 동북 안에서 말 다리뼈가 출토되었다. 羊과 염소는 머리, 말(馬)과 소(牛)는 머리와 다리를 중심으로 등, 갈비 등의 부위가 확인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라 톨고이유적은 양+말, 모린 톨고이유적은 양+소, 노용 올유적은 말(馬)이 우위를 점하고 있어 羊을 기본으로 소 혹은 말을 조합하는 경향이 보인다. 羊과 소(牛), 말(馬) 모두 머리가 주류를 이루며 그 외 羊과 소(牛)는 갈비, 다리 등이 출토되어 1개체분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헨티 아이막지역의 도르릭 나르스유적에서는 양+염소+말 1예를 포함하여 말(馬)의 출토빈도가 높은 편이다. 羊, 염소, 말(馬) 모두 머리와 다리가 대부분이다. 2호에서는 토기, 4호에서는 동북 안에서 각각 소뼈와 말뼈가 검출되었다. 돌르가 올유적에서는 양+소 1, 양+말 1, 양+소+말 1 등의 유례로 羊의 출토 수가 많고 그 다음은 소, 말이 차지하고 있다. 71-9호에서 출토된 청동 鼎에서 양 갈비

뼈가 발견되었다. 羊, 소(牛), 말(馬) 모두 머리뼈의 확인 예보다 다른 부위, 예를 들면 갈비, 날개, 엉덩이, 골반 등의 뼈가 많은 편이다. 전체적으로 양, 소, 말의 출토 수가 고르게 확인되며 容器 안에서 양, 소, 말 등 다양하게 검출되어 식용 동물의 범위가 가장 넓은 지역에 해당된다. 그 외 돈드 고비 아이막지역과 수흐바타르 아이막지역의 경우, 유례는 적지만 각각 양+말의 조합이 1예씩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동물 뼈 출토상태를 근거하면 지역적으로 아르항가이 아이막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동쪽과 서쪽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서쪽은 개 뼈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羊이 중심을 이루며 羊과 말(馬)은 1개체 분을 전부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음식물의 성격이 강한 容器 안에 羊을 매납하고 있다. 그에 반해 동쪽은 개 한 마리가 부장되고 있다. 중국 기록에 ‘오환 사람들이 개가 피장자를 하늘세계로 인도한다고 믿어 매장할 때 개를 붉은색 끈으로 매어 데려와 피장자와 함께 매장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무덤에 순장한 개 뼈를 ‘피장자의 영혼을 인도해 주는 동물로 해석하기도 한다.²¹⁾ 각 지역별, 혹은 유적별 다양성을 나타내지만 羊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동일하며 소 혹은 말을 조합하고 있다. 容器 안에서도 羊을 포함한 말(馬), 소(牛)가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아르항가이 아이막지역의 서쪽에 해당되는 흡스골 아이막지역과 연계해 동쪽에 위치한 불간 아이막지역은 양+염소의 조합이 우위를 점하고 있어 지리적 환경과의 관련성이 추정된다. 이것은 근·현대 유목민족에서 가축을 모아서 방목하는 유목경제를 보면 가축의 종류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생활 습성 및 이동속도와도 관련이 있다. 羊은 염소와 면양이 있는데 풀을 먹을 때 뿌리만 남기고 소나 말은 풀을 뜯을 때 줄기의 윗부분을 먹는다. 그래서 소나 말이 먹은 목장은 양이 이어서 먹을 수 있다. 그러므로 소나 말들이 먼저 풀을 뜯고 양들을 먹이면 목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²²⁾ 이러한 목축 경제와 副葬에 동원된 동물의 종류에 상관 관련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흉노 무덤의 대부분이 물이 풍부한 곳에 입지하고 있는 것도 이를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²³⁾

21) 에렉젠, 앞의 논문, 2009.

22) 조건은, 「中國 內蒙古 中南部地域 商周時代 考古學 文化 研究」,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2.

23) 에렉젠, 앞의 논문, 2009.

IV. 동물 부장양상을 통해 본 북흉노의 매장습속

이제까지 동물 뼈가 출토된 각 지역별 특징을 살펴보았다. 북흉노가 활약했던 몽골지역 전체에 걸쳐 동물을 부장하는 공통점을 가지면서도 각 지역에 따른 약간의 차이점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종합하여 북흉노의 매장습속을 복원하고자 한다.

1. 동물 부장양상의 유형

동물 부장양상은 무덤 대부분이 도굴 등에 의해 교란되어 원위치를 확정하기 어려우나 발굴 조사 당시 출토상태를 우선으로 하고자 한다. 동물의 부장위치 혹은 출토위치에 주목하면 크게 (1)지표면 적석 혹은 표토, (2)묘광 내부, (3)피장자를 중심으로 한 매장주체부, (4)부장공간,²⁴⁾ (5)豎穴에 가깝게 굴착된 묘광 벽 일부를 橫으로 파서 공간을 만들어 사용한 것, (6)토기나 동복 등 容器에 넣어진 것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속성을 중심으로 각 지역별 부장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4)

표 4. 몽골 내 각 지역별 동물 부장양상

아이막지역	부장위치					
	지표면	묘광내부	매장주체부	부장공간	묘광 벽 안	容器 안
오브스		●	●			
흙드			●	●	●	
고비알타이		●	●		●	●
홉스골		●	●			●
아르항가이	●	●	●	●		●
불간	●	●	●	●	●	
웁르항가이		●	●	●		
다르한울		●		●		
투브	●	●	●	●	●	●
돈드고비		●				
헨티	●	●	●	●		●
수흐바타르				●		

²⁴⁾ 주로 피장자의 머리 위에 위치하며 목관 밖, 목관과 목곽사이, 혹은 묘광 내에서 피장자의 주변이 아닌 토기와 동물을 일괄적으로 부장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묘광 벽 안으로 뚫어 만든 공간을 부장공간 혹은 순장공간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구분해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부장된 동물은 묘광내부→매장주체부, 부장공간→容器 안→묘광 벽 안, 지표면 적석 혹은 표토 順으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묘광내부, 매장주체부, 부장공간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는 묘광 벽 안과 容器 안에서 동물 뼈가 출토된 유적의 분포상태를 살펴보면 먼저 前者에는 흙드 아이막지역(타힐팅 핫거르 46호), 고비 알타이 아이막지역(히르기스트 홀로이 5호), 불간 아이막지역(보르한 툴고이 33호 외), 투브 아이막지역(모린 툴고이 01-2호) 등 4개소에서 알려져 있다. 하나의 묘광 내에서 피장자와 같은 공간을 나누어 부장공간으로 사용한 것과는 달리 피장자와는 다른 공간, 즉 묘광 벽을 다시 파서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동물을 부장하는 행위자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고비 알타이와 불간 아이막지역의 유례는 목관을 사용하고 묘광 자체의 공간이 부족하여 묘광 벽 안을 사용하였다고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흙드와 투브 아이막지역은 각각 목곽과 석곽으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부장공간도 마련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묘광 벽을 사용하고 있다. 동물을 부장하는 것 자체만으로 殉葬 혹은 제사 혹은 의례적 행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공간적 선택에 착안을 한다면 이것보다 祭祀의 의미가 강한 것은 없을 것이다.

한편, 묘제 형식에 따라 동물의 부장 양에 차이가 있는 것에 주목하여 재산과 사회적 지위와 결부시키고 있는 경우도 있다.²⁵⁷ 묘도가 있는 방형무덤에 주로 10개체분의 동물 뼈가 확인되는 것을 상기와 같이 해석할 수도 있으나 무덤을 조성할 때 동원된 인력과 관계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규모가 작은 토광묘나 석관묘를 만들 때보다 묘도가 있는 방형무덤을 조성할 때 보다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이며 그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음식량도 상대적으로 많아질 것이다. 규모가 큰 무덤일수록 동물 뼈가 묘광 내에서도 몇 차례(다단계)에 걸쳐 확인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선학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상징적인 의미에서 동물의 머리뼈나 다리뼈가 주로 부장되고 있는 것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後者, 즉 容器 안에 동물을 매납한 경우는 고비 알타이 아이막지역(히르기스트 홀로이 5호), 흙스골 아이막지역(누흐팅 합 21호), 아르항가이 아이막지역(골모드 Ds-14호, 나이마 툴고이 1호·14호, 호드긴 툴고이 87-2호), 투브 아이막지역(노용 울 54-9호), 헨티 아이막지역(도르릭 나르스 2호·4호, 돌르가 울 71-9호) 등 5개소에서 확인되었다. 기존에 출토된 동물 뼈의 부위에 따라 순장 혹은 음식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출토위치에 주목하여 동물 뼈가 容器

²⁵⁷ 에레젠, 앞의 논문, 2009.

안에서 확인되었을 때 음식물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명확할 것이다. 그리고 출토된 동물의 식용 가능성도 같이 염두에 둘 수 있다.

2. 동반유물

동물 뼈와 함께 몽골에서 발굴 조사된 흉노무덤에서는 다양한 재질의 유물이 알려져 있다. 흉노 고유의 유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뉠 수 있으나 중국제로 인정되는 것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중국제로는 청동거울, 칠기용기, 마차 등이 확인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절대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문자자료는 칠기에 많이 남아있다. 현재 알려진 자료는 몽골국립박물관 소장 노용 올 5호 출토 黃耳杯(기원전 2년), 노용 올 6호 출토 黑漆耳杯(기원전 2년), 노용 올 수지그테 20호 출토 漆耳杯 2개(기원전 8년), 골모드 20호 출토 漆耳杯(기원전 16년) 등을 열거할 수 있다.²⁶⁾ 지역적으로는 투브 아이막지역에 집중하고 있으며²⁷⁾ 아르항가이 아이막지역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수레와 수레 부속구들이 발견되었는데 복원형태에 의거하여 크게 두 형식으로 구분하였다.²⁸⁾ 1형식은 중국 漢代의 輶車 형식으로 흙드 아이막지역(타힐팅 훗커르 1호와 2호), 아르항가이 아이막지역(골모드 20호), 투브 아이막지역(노용 올 1호), 헨티 아이막지역(도르릭 나르스 2호) 등에서 출토되었다. 2a형식은 짐칸과 같은 형태로 골모드 1호, 러시아 부리아트 차람 7호 등에서 확인되었으며, 2b형식은 가마와 같은 모습으로 실제 유물은 유례가 없다.²⁹⁾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漢鏡과 마찬가지로 마차 역시 중국과의 관계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선학들의 지적을 바탕으로 몽골 내 각 지역별 주요 유물의 출토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5)

26) 강인욱, 『匈奴遺蹟 출토 銘文자료에 대한 일고찰』, 『한국상고사학보』제 75호, 한국상고사학회, 2012, 189~219쪽.

27) 그 외의 문자자료인 銘文錦은 노용 올 1호(기원후 9년), 6호, 10호, 20호, 47호, 59호 등에서 발견되었다(강인욱, 앞의 논문, 2012).

28) Ch.유롤 에르테네, 『골모드 유적 흉노 귀족 무덤 출토 거마구』, 『초원의 대제국 흉노(한-몽 공동학술조사 1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 국립중앙박물관, 2008, 118~145쪽.

29) 골모드 1호의 사례에 대해 차상 위에 사람이 탈 수 있는 일종의 '가마'로 사용되는 內室이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에렉젠, 앞의 논문, 2009).

표 5. 몽골 내 각 지역별 주요 유물 출토현황

아이막지역	허리띠버클			漢鏡	마차	마구					
	골제	목제	금속제			합	鑣		은제장식	마타	마면
							골제	철제			
오브스											
홉드		●			●	●					
고비알타이		●									
홉스골						●	●				
아르항가이			●(철)	●	●	●	●	●	●	●	
불간	●	●	●(철)	●		●	●		●		
웁르항가이		●		●							
다르한울											
투브			●(철)	●	●	●	●			●	
돈드고비			●(銅)			●	●				
헨티				●	●	●	●			●	
수호바타르				●							

출토유물 중에서 흉노무덤의 시기를 판단할 때 근거로 삼는 것 하나가 漢鏡이다. 이것을 이용하여 흉노와 중국의 관계를 시기적인 변천에 따른 변화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한경의 제작시기와 매납시기 등을 고려한 몽골지역에서의 편년을 참고하면³⁰⁾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먼저 昭明鏡(기원전 1세기 중엽-후반)의 출토된 아이막지역은 아르항가이, 불간, 웁르항가이 등이며 日光鏡(기원전 1세기 중엽-후반) 역시 아르항가이와 불간 아이막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와 함께 아르항가이 아이막지역에서는 마차, 銜을 포함한 골제 및 철제 鑣, 마면, 마타, 은제 말띠드리개 등 다양한 요소가 보이고 있어 유물의 성격, 재질, 구성 등에 바탕을 둔다면 이 시기 중국과의 관계가 성행했던 흉노세력의 중심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불간 아이막지역은 前者에 비해 마차, 마면, 은제 말띠드리개 등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르항가이 아이막지역과 더불어 흉노 내에서 중국과 긴밀한 접촉을 하고 있던 중심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2단계는 四乳四虺鏡(기원후 1세기 전반)이다. 이 유물이 검출된 아이막지역은 불간, 웁르항가이, 투브, 수호바타르 등이다. 이 시기에는 前段階의 불간과 웁르항가이 아이막지역이 여전히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새롭게 투브와 수호바타르 아이막지역이 부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투브 아이막지역의 유물

³⁰⁾ 에레젠, 앞의 논문, 2009.

구성을 보면 마차, 銜, 철제 鑣, 마면 등이 확인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規矩鏡(기원후 1세기 중-후반)은 아르항가이, 불간, 투브 등의 아이막지역, 雲雷連弧文鏡(기원후 1세기 후반) 역시 아르항가이와 불간 아이막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첫 단계부터 흉노 내에서 중국과의 교류 혹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권력의 핵심을 이루고 있던 아르항가이와 불간 아이막지역은 3단계까지 그 세력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투브 아이막지역은 2단계부터 그 세력을 나타내기 시작하여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3. 피장자의 성별

여기에서는 동물이 부장된 흉노무덤 중에서 피장자의 성별을 알 수 있는 유례를 중심으로 각 지역별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표 6)

표 6. 몽골 내 각 지역별 동물뼈가 부장된 피장자의 성별

아이막지역	전체 (기)	피장자 성별		남녀	어린이	미확인	비고
		남	여				
오브스	2					2	
홉드	4		2 (50%)			2	
고비알타이	3	1(33%)				2	
홉스골	3					3	
아르항가이	37	3(8%)	2(5%)	5(13%)	2(5%)	25	
불간	34	12 (35%)	7 (20%)		5 (14%)	13	
옵르항가이	8	2(25%)				6	
다르한울	4					4	
투브	22		3 (13%)			18	
돈드고비	1					1	
헨티	6	2(33%)	1 (16%)			4	
수흐바타르	1					1	

※()안의 숫자는 점유율

먼저 홉드 아이막지역의 경우, 동물 뼈가 발견된 4기의 무덤 중 2기에서 여성이 확인되었고 모두 묘도를 가진 목곽묘 구조이다. 그 가운데 타힐팅 핫거르 2호에서는 목관과 목곽사이 북쪽 공간에 말 머리뼈 5개와 다리뼈를 부장하였는데 그 중 말 머리뼈 하나가 받침대 위에서 검출되었다. 또한 목곽 서벽 밖에서 철제 銜과 재갈멈추개, 마구용 버클 등이 출토되었으며 목곽 뚜껑 위에서 바퀴와

굴대 등의 마차흔적이 수습되었다. 여기에서 말뼈를 주로 동반하는 피장자는 남성이 많다는 기존 연구에 예외적인 부분에 해당되며³¹⁾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마차나 마구가 출토되고 있어 흥미롭다. 또한 아르항가이 아이막지역에서는 남녀 합葬의 유례가 눈에 띈다. 전체적으로 동물의 종류로 피장자의 성별을 규정하기는 어려움이 많은 듯하다.

V. 맺음말

흉노이래로 북중국과 몽골에서 발흥한 유목제국과 발달된 문화가 서쪽으로 전파되어 갔다. 훈족의 서진, 서기 3-5세기 유연의 서진과 개미문화의 유럽 유입에 따른 아바르족의 등장에서 몽골제국에 이르는 흉노 이후의 1,000여 년간은 동아시아 유목제국의 중심에 있다.³²⁾

본고에서는 흉노 중에서도 북흉노가 활약하였던 몽골지역을 대상으로 동물 부장이라는 요소를 통해 그들의 매장습속을 살펴보았다. 이제까지 막연하게 유목민의 매장습속으로 규정되어 오던 동물 부장이 유목민의 한 족속인 흉노 내에서도 동일하게 행해졌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유목민이면서 흉노, 그 중에서도 북흉노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매장습속을 규정함으로써 하나의 유목사회를 복원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른 유목사회와의 비교·검토가 가능하며 미약하지만 유목민의 족속, 그 가운데 흉노가 가지고 있는 在地문화와 중국의 外來문화 도입, 그리고 수용, 전개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중국 변방의 오랑캐로 규정되어 온 흉노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동아시아 고대사에서 흉노의 역할을 다시 재고할 필요성을 제시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번에는 언급하지 않은 중국 내몽고지역을 중심으로 한 남흉노와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흉노가 매우 중요한 단서를 가진 족속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 투고일 2012년 8월 16일 | 심사완료일 2012년 8월 30일 | 게재확정일 2012년 9월 3일 ■

31) 불간 아이막지역의 홀르터스트 녹가 12호의 경우도 여기에 속한다.

32) 강인욱, 앞의 논문, 2010.

참고문헌

- 윤형원, 『모린 톨고이 흉노 무덤의 성격(제1회 한-몽 학술심포지엄)』, 국립중앙박물관, 2003.
- Ch.아마르투스, 『예긴강 유역 판석묘에 대한 연구(제1회 한-몽 학술심포지엄)』, 국립중앙박물관, 2003.
- N.V.폴로스막·D.체벤도르지·E.S.보그다노프, 『노인-올라(Noin-Ula) 제 20 호분 고분』, 『초원의 대제국 흉노(한-몽 공동학술조사 1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 국립중앙박물관, 2007.
- 장은정·황보창서·윤상덕, 『몽골 도르릭나르스 흉노 무덤 발굴조사 보고』, 『초원의 대제국 흉노 2000년 전 무덤의 발굴(한-몽 공동학술조사 1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 국립중앙박물관, 2007.
- 국립중앙박물관編, 『몽골 흉노 무덤 자료집성』, 2008.
- G.에렉젠·N.바트벌르드·D.바자르구르·P.알다르몽흐·장은정·황보창서·윤상덕, 『도르릭 나르스 유적 흉노 무덤 발굴조사』, 『초원의 대제국 흉노(한-몽 공동학술조사 1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 국립중앙박물관, 2008.
- D.체벤도르지·N.바트볼로드·N.에르데네 오치르·M.첸겔르·N.V.폴러스마크, 『노용-을 20호 흉노 귀족 무덤 발굴조사 성과』, 『초원의 대제국 흉노(한-몽 공동학술조사 1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 국립중앙박물관, 2008.
- J.바야르사이한, Ts.에기마, 『타힐팅 흘거르 유적 64호 무덤 발굴조사 성과』, 『초원의 대제국 흉노(한-몽 공동학술조사 1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 국립중앙박물관, 2008.
- Ch.유물 에르데네, 『골모드 유적 흉노 귀족 무덤 출토 거마구』, 『초원의 대제국 흉노(한-몽 공동학술조사 1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 국립중앙박물관, 2008.
- 마이크 파커 피어슨 저, 이희준 역, 『죽음의 고고학』 영남문화재단연구원 학술총서 5, 사회평론, 2009.
- 에렉젠(Gelegdorj EREGZEN), 『몽골 흉노 무덤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강인욱, 『흉노와 동아시아 -흉노학의 정립을 위한 토대구축을 겸하여-』 『동아시아

- 아 고대문화 속의 흉노(부경대학교 · 중앙아시아학회 2010년 국제학술대회)』, 사단법인 중앙아시아학회 ·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0.
- _____, 『匈奴遺蹟 출토 銘文자료에 대한 일고찰』, 『한국상고사학보』제 75호, 한국상고사학회, 2012.
- D.에르데네바타르, 『발기슨 탈(골모드Ⅱ) 흉노 귀족무덤 조사』, 『흉노와 그 동쪽의 이웃들(국립중앙박물관 · 부경대학교 2012 국제학술대회)』, 2012.
- 조건은, 『中國 內蒙古 中南部地域 商周時代 考古學 文化 研究』,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Abstract

Burial Custom of the North Huns Determined from
the Burial Styles of Animal Bones
-Focusing on the tombs of Mongolia-

Chang, Yoon-Ch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animal bones were buried in the tombs of Mongolia and Inner Mongolia in China, determining whether the burial styles of animal bones found in those tombs, which has been just deemed one of nomadic burial customs, were actually what were applied by the Huns as an ancient nomadic tribe. The finding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burial styles of animal bones excavated from the tombs of Mongolia and Inner Mongolia varied according to where those tombs had been formed.

According to the kinds of animal bones, those tombs can be largely classified into those located in the east and west of Arhangai Aimag. In the west, more specifically, animal bones found in the Huns tombs were mostly from sheep, which were in more cases combined with goat bones. Most containers excavated from the tombs also had sheep bones inside. In the east, while, the kinds of excavated animal bones varied in accordance with where the Huns tombs were formed or what remains were associated with those tombs. Nevertheless, most of those bones were still from sheep, which were found combined with cow or horse bones. Containers from the tombs usually had a mixture of sheep, horse and cow bones inside.

In the Huns tombs of Mongolia, animal bones were in most cases found inside the tomb hollow, followed by in the space of the dead body's burial or his or her belongings' burial, inside the container, inside the walls of the tomb hollow and in the stone mound or topsoil of the tomb in order. In the Huns tombs of Inner Mongolia in China, while, animal bones were

mostly found in the space of the dead body's burial or his or her belongings' burial. Therefore, placing animal bones inside the walls of the tomb hollow or putting them in the container may be regarded as one of the characteristics that the Huns tombs of Mongolia had.

The tombs where animal bones were found generally had Chinese bronze mirrors inside. Accordingly, the period when regions having those forms made exchanges with China could be divided into three stages. Key regions that maintained relationships with China from the first to third stages were Akhangai Aimag and Bulgan Aimag. While, it was the second stage when Tov Aimag emerged as another mainstream in relationships with China.

Key Words : animal bones, burial style, Mongolia, the Huns, burial custom

